

## 밤의 종이 한 장이 나를 건졌던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밤이 있다. 화면을 끄고 난 뒤, 방 안이 조용해지는 속도에 맞춰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밤. 몇 해 전, 그런 외로운밤이 반복되던 시기에 책상 모서리에 굴러다니던 영수증 뒷면을 집어 들었다. 검은 볼펜으로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선을 하나 긋고, 다시 하나를 더했다. 그 선들이 어딘가로 모여 작은 컵이 되었다가 식탁이 되었다. 십 분도 지나지 않아 종이 위에 작은 장면 하나가 정착했고,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부터 나는 밤마다 종이와 도구 몇 개를 꺼내는 습관을 들었다. 거창한 작업이라기보다, 잠들기 전 가볍게 하는 양치질 같은 일. 그렇게 쌓인 페이지가 한 권, 두 권 넘어가자 그 노트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외로움이라는 무형의 무게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무늬로 바꾸는 도구가 되었다.

## 작고 가벼운 도구들이 주는 자유

밤 드로잉의 핵심은 문턱을 낮추는 일이다. 정규 작업처럼 준비에 30분이 걸리면 이미 마음이 식는다. 손이 먼저 나가 종이를 열게 하려면, 도구는 작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내가 외로운밤에 쓰는 기본 장비는 A6 스케치북 하나, 단단한 연필과 부드러운 연필 두 자루, 얇은 펜 한 자루, 지우개와 무릎담요 정도다. 책상에 오래 앉을 만큼 의욕이 나지 않는 날에는 소파 팔걸이를 임시 작업대로 삼는다. 손목에 부담이 덜 가는 얇은 펜은 그럴 때 특히 고마운데, 손끝과 종이의 마찰이 낮아지면 선 하나 긋는 데도 마음이 더 빨리 붙는다.

가방을 들고 나갈 일이 잦은 주에는 한 세트를 아예 파우치에 넣어 둔다. 카페에서 20분, 지하철에서 7분, 엘리베이터 앞에서 2분, 쪼개진 시간들이 페이지를 채운다. 작은 드로잉은 작업 전환 비용이 거의 없어서, 생활의 자투리와 잘 어울린다. 외로운밤에도 이 자투리가 통한다. 긴 침묵을 채우려 소셜 미디어를 여는 대신, 펜을 잡고 라벨 없는 병 하나를 그려 넣는 편이 낫다. 그 라벨 자리에 적는 날짜와 시간, 오늘의 기분 한 단어는 의외로 강력한 인덱스가 된다.

가방 속 기본 세트를 묻는 사람이 종종 있다. 최소 구성에 집착하면 손이 더 자주 움직인다. 내 경우는 아래 다섯 가지다.

- A6 하드커버 스케치북 200gsm, 48장
- 연필 2H, HB, 4B 각 1자루
- 0.38 젤 잉크 펜, 블랙
- 미니 지우개와 무릎담요 크기의 부드러운 천
- 소형 워터브러시 또는 수성 브러시펜 1개

## 색보다 먼저, 빛을 다루는 법

밤에는 조명이 색을 바꿔 버린다. 새벽 1시에 형광등 아래서 코발트 블루를 올리면 다음 날 아침 창가에서 본 색과 다르다. 그 차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채도가 붕 뜨고, 값비싼 물감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나는 밤 드로잉에선 주로 단색으로 시작한다. 먹색, 그래파이트, 또는 잉크 한 가지. 색을 넣을 때도 최대 세 가지로 묶는다. 울트라마린, 번트 시에나, 리프 그린 같은 기본 팔레트는 현명하다. 이 조합은 채도 조절이 쉽고, 작은 면적에도 깊이를 준다.

조명의 연색성과 색온도는 결과물에 직접 영향을 준다. 가정용 스탠드라면 CRI 90 전후, 3000K에서 4000K 사이가 무난하다. 2700K에선 종이가 따뜻하게 보여 어두운 음영이 과도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5000K 이상은 차갑고 경직된 느낌을 주며, 회색 단계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기 어렵다. 실제 작업에선 스탠드를 낮게 두고, 빛이 종이 위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게 각도를 잡는다. 오른손잡이라면 빛이 왼쪽 위에서 오도록 하면 손 그림자가 덜하다. 이 작은 조정 하나로 선의 정확도가 분명히 오른다.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동일한 사물 스케치를 2700K 전구와 4000K 전구 아래서 각각 15분씩 그렸을 때, 4000K에서 명암의 경계가 덜 뭉개져 선의 탄력이 더 살아났다.

## 선의 성격이 감정의 온도를 닮는다

외로운밤의 선은 낮의 선과 다르다. 낮에는 목적이 선명하고, 선이 기능적으로 움직인다. 밤에는 목적이 흐려지고, 손이 머리에 기대지 않고 저만의 속도로 전진한다. 그럴 때 나오는 선은 가늘고 떨리기도 하고, 불필요할 만큼 겹겹이 쌓이기도 한다. 이 선들을 억지로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흐트러진다. 대신 떨림을 받아들이고, 떨리면서도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 준다. 경계선을 한 번에 명확히 그으려 하지 말고, 3회에서 5회 가볍게 겹치면 보다 진솔한 외곽이 생긴다. 그 겹침의 간격은 1mm 내외로 유지해 보라. 간격이 늘어나면 형태가 갈라지고, 줄이면 음영으로 읽힌다.



손이 유난히 불안정한 날에는 블라인드 컨투어를 한다. 사물을 보면서 종이를 보지 않고 3분 동안 연속선으로만 그리는 방식이다. 선이 대상과 함께 걸어가는 경험이 생긴다. 결과는 우스꽝스러울 때가 많지만, 손과 눈의 거리를 좁혀 주는 데 탁월하다. 이런 연습을 하고 나서 본 작업을 시작하면, 불필요한 조바심이 가라앉는다. 외롭다는 감정이 손끝에서 역으로 지침이 되는 순간이다.

## 작은 포맷이 주는 구조와 한계

A6는 손바닥 두 개를 나란히 놓은 크기다. 이 작은 포맷의 장점은 시각의 부담이 낮다는 점, 완료의 경험이 빨리 온다는 점, 보관과 이동이 쉽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미세한 음영 변화를 표현하려면 선 밀도를 높여야 하고, 면 처리 시 과잉 묘사가 되기 쉽다. 그래서 작은 드로잉에서는 선과 면의 비율을 의식적으로 조절한다. 예를 들어 컵을 그릴 때, 컵 바깥 둘레는 선으로 두르고, 안쪽의 그늘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으로 처리한다. 반사광만 아주 얇은 면으로 지우개를 써서 들어 올린다. 시간은 12분에서 20분 사이가 적당하다. 30분을 넘기면 선이 지쳐서 표정이 굳는다.

페이지 구성에도 요령이 있다. 한 페이지에 오브젝트 하나만 크게 그리면 환기가 빠르다. 쪼개 그리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페이지를 가상의 3등분으로 나눠 컵, 손, 창틀 같은 서로 다른 모듈을 배치해 본다. 시선의 흐름을 고려해 좌상단 - 중앙 - 우하단으로 각을 주면 균형을 얻기 쉽다. 날짜, 시간, 장소, 도구를 하단 모서리에 6mm 높이의 작은 글씨로 적어 두면, 나중에 훑어볼 때 흐름이 살아난다. 이 기록은 감정의 데이터이기도 하다. 12월 둘째 주에는 HB보다 4B 사용 비율이 높았다는 식의 작은 통찰이 쌓인다.

## 루틴이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게 한다

의지는 유한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외로운밤에 드로잉을 한다는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순서를 짧고 확실하게 만들어 두면, 마음이 따라오기 전에 몸이 일을 한다. 나는 25분 루틴을 돌린다. 늦은 퇴근일 땐 15분으로 내린다. 어느 쪽이든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 밤 드로잉 루틴, 25분

1.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물 끓는 소리를 타이머 삼는다.
2. 스케치북을 연 채 스탠드 각도와 의자 높이를 고정한다.
3. 펜 한 자루와 연필 한 자루만 꺼낸다, 나머지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4. 사물 하나를 고르고, 3분 블라인드 컨투어 후 12분 관찰 스케치에 들어간다.
5. 남은 10분엔 음영 보강, 날짜 기록, 페이지 넘기기까지 한다.

## 스킬 몇 가지, 정확하게 쓰기

연필선의 질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밤은 최적의 시간이다. 소리를 통해 선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 위에서 연필이 내는 작은 사각거림을 들으며 압력을 30%씩 줄였다 늘렸다 해 보라. 손바닥은 테이블에서 떼고, 새끼손가락만 가볍게 종이를 닿게 하면 미세 제어가 쉬워진다. 단단한 2H로 구조선을 잡고, HB로 형태를 확정된 뒤, 4B로 강조를 찍는다. 강조는 전체 면적의 3% 이내로 제한한다. 숫자를 정해 두면 과장이 줄고, 드로잉이 단단해진다.

잉크를 쓸 때는 해칭을 단일 방향으로만 두 겹 올리는 방식을 선호한다. 작은 포맷에서 교차 해칭을 지나치게 올리면 먹색 덩어리가 생긴다. 선의 간격은 0.7mm에서 1mm, 두 번째 레이어는 첫 번째와 15도 각도를 준다. 엄격해 보이지만, 이런 세팅을 해 두면 느슨한 감정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구조가 생긴다. 부정 공간을 먼저 채우는 방식도 밤에 유용하다. 사물 자체를 그리기 전에 둘레의 빈 공간부터 얇은 선으로 틀을 잡아 보라. 대상의 윤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사물의 크기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 불면에 가까운 밤엔 연속선 드로잉을 권한다.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5분, 사물의 경계를 따라가며 선의 길이를 늘려 본다. 뇌가 단일 과제에 붙들리는 동안, 마음의 과잉은 한 걸음 물러난다.

## 조용한 소리, 침묵의 질감

음악이 도움이 되는 날도 있고, 모든 소리가 거슬리는 날도 있다. 나는 두 가지 환경을 번갈아 쓴다. 첫째는 40에서 60bpm 사이의 느린 피아노 연주다. 박자와 구조가 단순해 선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다. 둘째는 완전한 침묵. 침묵 속에서는 손과 종이의 마찰음이 리듬이 된다. 이때는 펜과 종이의 조합을 신중히 고른다. 예를 들어 미세한 소리를 듣고 싶을 땐 0.38 젤 펜과 미세한 텍스처가 있는 200gsm 종이가 잘 맞고, 차분한 미끄러짐을 원하면 0.5 파인라이너와 매끈한 160gsm도 괜찮다. 소음이 있는 집이라면 소음 차단 이어플러그를 써 보라. 완벽한 차단이 아니라, 15에서 20dB 정도 줄여 주는 제품이 밤 드로잉에는 적당하다. 완전 차단은 오히려 손의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

## 실패를 대하는 일, 페이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

작은 노트는 실패 허용도가 높다. 한 장을 망쳐도 다음 장으로 금방 넘어간다. 이 속도가 중요하다. 실패를 분석하고 반성문을 쓰는 대신, 3분짜리 미니 스터디를 두 장 더하는 방식이 훨씬 낫다. 다만 버리기와 남기기의 기준은 필요하다. 나는 두 달마다 한 번, 노트를 훑으며 세 가지 신호를 본다. 첫째, 같은 실수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 페이지, 둘째, 분명히 의욕이 없이 시간을 채운 흔적, 셋째, 오늘의 감정이 과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페이지. 첫째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다음 노트에서 10분짜리 보완 연습을 한다. 둘째는 과감히 버린다. [외로운밤](#) 셋째는 스캔만 하고 원본을 따로 봉투에 넣어 둔다. 감정이 낡으면 돌아볼 수 있지만, 생생할 때는 보관만 하고 시야에서 치운다. 이 간격이 작업을 계속하게 만든다.

수치도 써 둔다. 한 권 48장 중에서 기꺼이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는 평균 8에서 12장 정도다. 대략 20에서 25%다. 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남은 75%의 페이지를 부끄러움 없이 생산한다. 그 비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면 도구나 조명, 루틴 중 뭔가가 어긋난 것이다. 반대로 35%를 넘기면 안전지대에만 머물렀을 확률이 높다. 그때는 일부러 낯선 사물을 고른다. 싱크대의 배수구, 뒤집힌 의자 다리, 사용 중인 충전 케이블처럼, 구조가 복잡하고 예쁘지 않은 것을 그린다.

# 함께 사는 공간에서의 협상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면 밤의 소음과 빛은 곧 가족의 피곤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스탠드에 종이 커버를 만들어 씌운다. 커튼처럼 빛이 퍼지지 않고, 종이 아래로만 떨어지게 한다. 두께 200gsm의 흰 종이에 직사각형 구멍을 뚫어 스탠드 헤드에 자석으로 붙였다. 덕분에 침실 쪽은 어둡고, 책상만 밝다. 드로잉 소리도 배려한다. 유성 마커는 소리가 적지만 냄새가 강하고, 워터브러시는 소리도 냄새도 얇전하다. 서랍 여닫는 소리가 은근히 크니, 자주 쓰는 도구는 트레이에 빼 두고, 페이지 넘길 때는 모서리를 천으로 한번 쓸어 민 소리를 줄인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조정이 쌓이면 밤 드로잉의 생존률이 확 올라간다.

## 기록의 기술, 공유의 윤리

그림은 종이 위에서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파일로 살아간다. 습기와 먼지, 우연한 커피 얼룩에서 안전해지는 대신, 메타데이터라는 새로운 심지에 올라탄다. 스캔은 300dpi면 충분하지만, 그래파이트의 입자감까지 보존하려면 600dpi를 권한다. 컬러 작업은 sRGB로, 흑백은 그레이스케일로 저장한다. 촬영을 택할 경우, 스마트폰의 수평 가이드를 켜고 자연광 아래에서 촬영하되, 빛이 반사되는 구역을 10도 정도 비틀어 피한다. 가로 3000픽셀 이상이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공유에 충분하다.

파일명은 연-월-일시-분도구키워드 형식을 쓴다. 예: 2025-01-1423-08HB-038pen컵-창틀. 검색이 쉬워지고, 시간의 결이 파일명에 드러난다. 공유는 신중하게 한다. 외로운밤에 그린 드로잉은 대개 사적인 표정을 가진다. 그 사적인 부분을 세상에 보여줄지, 언제 보여줄지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최소 48시간, 길게는 2주를 두고 본다. 감정의 농도가 빠진 뒤, 드로잉 자체의 완성도로 평가한다. 덕분에 즉흥적 후회가 줄었다. 반응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또 한 가지 팁은, 게시물에 작업 메모를 3줄로 제한하는 것이다. 긴 설명은 그림을 방패 삼아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기 쉽다. 설명은 작업의 조건만 남긴다. 오늘의 도구, 시간, 빛. 그 셋이면 충분하다.

## 세 장면, 세 개의 밤

어느 겨울, 오래된 라디오를 그렸다. 버튼이 하나 빠져 있고, 볼륨 다이얼은 흠집투성이었다. 0.38 펜으로 라디오의 격자무늬를 해칭으로 채웠다. 간격을 0.8mm로 설정하고 12분 동안 같은 속도로 선을 깔았다. 3분 지나면 지루해지고, 7분 즈음엔 팔이 무거워진다. 거기서부터가 본 게임이다. 마지막 2분, 격자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다. 빈 칸은 노이즈처럼 보였고, 노이즈는 라디오의 옛날 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작업을 덮는 순간, 방 안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누구든 그 라디오를 한 번쯤 돌려 본 적이 있을 거라는 공통 감각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다른 밤에는, 식탁 위에 얹어 둔 머그컵과 그 옆의 반쯤 벗겨진 만다린 껍질을 그렸다. 2H로 컵의 타원만 두 번 돌려 잡고, HB로 손잡이의 두께를 보강했다. 만다린 껍질은 4B로 끊긴 선을 빠르게 적었다. 질감은 심리의 은유다. 껍질의 거칠음은 그날의 마음과 비슷했다. 껍질의 안쪽을 연하게 문질러 하이라이트를 올리니, 과육의 밝음이 살아났다. 그 조출한 대비만으로 방금 전 전화 통화의 짹짹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묘한 구획이 생겼다. 현실의 짹짹함과 그림의 밝음이 공존하는 자리. 나는 거기에 펜을 꽃듯 날짜를 적었다.

또 어떤 밤에는 창밖의 공사 크레인을 그렸다. 빛이 거의 없어 형태만 보였다. 블라인드 컨투어로 3분, 종이를 보지 않고 선을 올렸다. 선이 엇갈려 크레인이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겹쳤다. 이후 10분, 실재를 보며 겹침을 일부만 정리했다. 다 정리하지 않은 채 멈추는 용기를 배웠다. 미완이 주는 긴장감이 때로는 완성보다 깊다. 그 페이지를 넘기는 데 0.7초가 걸렸을까. 넘긴 뒤의 여백이 무척 넓게 느껴졌다. 외로운밤은 그렇게 가끔, 선 하나로 여백을 되찾아 준다.

## 몸을 보호하는 사소한 습관들

밤의 드로잉은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다. 손목과 어깨가 특히 그렇다. 20분 이상 작업할 땐 5분마다 눈을 깜빡이며 먼 곳을 본다. 6m 이상, 6초. 이 간단한 6-6 규칙이 다음 날의 눈 피로를 줄인다. 손목은 중립 각도를 유지하고, 스케치북의 아래쪽에 2cm 정도 책을 괴어 기울기를 만든다. 허리에는 얇은 쿠션을 대고, 발은 바닥 전체가 닿게 둔다.

다. 딱딱한 의자라면 타이머를 25분에 맞추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30초 동안 어깨를 굴린다. 과장처럼 들리지만, 이런 디테일을 지키지 않으면 2주쯤 지나 손목이 반응한다.

물과 차도 전략이다. 카페인은 집중에는 좋지만 손의 미세 떨림을 키운다. 특히 잉크 드로잉일 때 문제가 된다. 오후 늦게 카페인을 줄이고, 밤에는 루이보스나 보이차처럼 카페인 없는 차를 권한다. 물은 작업 전에 200ml, 작업 후 200ml. 적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밤에 과음하면 손이 붓는다. 새벽에 일어나 손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의 절반은 수분 조절에서 답을 찾았다.



## 무엇을 그릴지 모를 때의 돌파구

대상 선택이 막힐 때가 있다. 종이를 열었는데 눈이 어디에도 꽂히지 않는다. 그럴 때는 룰을 하나 적용한다. 방 안의 사물을 시계 방향으로 훑으며, 첫 번째로 빛이 닿은 물체를 그린다. 선택의 무게를 대상에게 넘기는 셈이다. 혹은 반대로, 가장 어둡고 형태가 불분명한 것을 고른다. 불분명함은 관찰을 강제한다. 관찰을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그려진다.



사람을 그리고 싶을 때는 셀피를 피한다. 자기 얼굴은 선입견이 많고, 선이 경직되기 쉽다. 대신 TV 화면의 인물, 영상 통화 중 잠시 정지된 프레임, 오래된 잡지 속의 모델을 빠르게 스케치한다. 60초 포즈 두 번, 3분 포즈 한 번. 합계 5분이면 충분하다. 얼굴을 그릴 때 가장 먼저 코의 아래 음영을 잡고, 이후 눈과 입의 관계를 본다. 눈부터 그리면 비율이 틀어지기 쉽다. 코 아래의 삼각형이 얼굴의 중심을 잡아 준다. 숫자 기준을 세우자면, 코 아래에서 턱 끝까

지의 길이를 1로 둘 때, 코 아래에서 미간까지가 1, 미간에서 머리 꼭대기까지가 1.5 전후다. 이 기준선만 기억해도 드로잉의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

## 도구를 바꾸는 용기, 하지만 한 번에 하나만

밤에 지루함은 위험하다. 지루함이 쌓이면 손이 멈춘다. 새로운 도구는 좋은 자극이지만, 한 번에 여러 개를 바꾸면 무엇이 효과인지 알 수 없다. 한 주에는 펜촉만 바꾸고, 다음 주에는 종이만 바꾼다. 예를 들어 0.38 젤 펜에서 0.5 마이크로 펜으로 넘어갈 때, 선은 두껍고 균일해진다. 그 변화가 음영의 해상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록한다. 또는 200gsm에서 160gsm으로 종이를 바꾸면, 지우개가 종이에 남기는 결이 달라진다. 이 체감은 설명을 읽는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본인의 손으로만 얻을 수 있다. 바꾸는 양을 1개로 제한하면,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외로운밤이 끝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떤 밤은 아무리 그러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선이 얇게만 나오고, 한 페이지를 마친 뒤에도 같은 공기가 남아 있다. 그런 밤에는 작업을 억지로 늘리지 않는다. 대신 의식을 바꿔 본다. 첫째, 지금 그리고 있는 사물을 사진으로 한 장 찍는다. 감정이 아니라 형태를 기록하는 행동이 개입한다. 둘째, 그 사진을 참고로 3분 안에 도형만으로 사물을 재구성한다. 원, 사각형, 삼각형, 실린더. 셋째, 종이를 덮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다. 이 이동이 결정적이다. 장소를 바꾸면 눈과 손의 관계가 리셋된다. 돌아와서 같은 사물을 다시 그리면 선이 달라진다. 이 순서가 먹히지 않을 때도 있다. 그땐 노트를 덮고, 날짜만 적는다. 그 한 줄의 기록으로 충분한 밤도 있다. 다음 밤이 오면 또 그리면 된다. 외로운밤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의 일부다. 연속에서 중요한 건 총합이지, 특정한 한 번의 성과가 아니다.

## 그래도 계속 그리는 이유

작은 드로잉 노트는 결과물을 모으는 그릇이면서, 밤이라는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다리다. 1개월 동안 20장, 3개월 동안 60장, 1년이면 200장에서 300장 사이가 쌓인다. 그중 일부는 언젠가의 작업으로 재구성된다. 더 많은 부분은 아무 데도 쓰이지 않는다. 쓰이지 않는 페이지가 무의미하진 않다. 그 페이지들은 외로운밤의 통행증 같다. 가만히 넘기다 보면 특정한 패턴이 눈에 띈다. 계절에 따라 선의 굵기가 달라지고, 조명의 바뀔에 따라 명암의 경계가 흐려진다. 어떤 달에는 식물만, 또 다른 달에는 손과 컵만 가득하다. 그 변화가 내 삶의 리듬과 맞물린다. 일이 많아진 달엔 직선이 많고, 친구를 자주 만난 달엔 선의 곡률이 커진다. 숫자로 환원하기 어려운 디테일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의 주파수를 보여 준다.

그림을 그린다고 삶이 훌륭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밤에는, 선 하나가 허공의 무게를 옮겨 준다. 작은 종이, 짧은 시간, 제한된 도구. 이 제약 안에서 오히려 선택이 분명해진다. 감정은 형태를 만나고, 형태는 페이지에 정박한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넘겨 본 페이지에서 전날 밤의 공기가 조용히 피어오른다. 외로운밤이 남긴 흔적이 선명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선명함이 부끄러워 살짝 덮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 중요한 건 한 장 더. 오늘 밤에도, 한 장 더.